다이빙 김보경·부혜주 국제무대 화려한 데뷔

김보경 도쿄스위밍센터오픈 1m스프링보드 금메달
고교 유망주 부혜주도 플랫폼서 값진 동메달 추가

제주 수영의 희망이자 다이빙 기대주인 김보경(한라중2)·부혜주(남녕고1)가 국제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합작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에 따르면 다이빙 국가대표 후보인 김보경과 부혜주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펼쳐진 '제57회 도쿄스위밍센터오픈 meet 2026'에서 금메달 1개를 비롯해 동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대표 8명(남4·여4)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보경은 대회 마지막날인 3일 여자 14-15세그룹 1m스프링 결선에서 279.80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홈팀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경은 대회 3일째인 지난 2일 여자 14-15세그룹 플랫폼 결선에서도 252.55점을 적어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보경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2개의 동메달을 획득, 2027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소년체전에서의 금빛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 고교 유망주 부혜주도 대회 첫날 여자 16-18세그룹 플랫폼 결선에서 290.50점을 기록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혜주는 지난 2일 여자 16-18세그룹 3m스프링 결선(280.20점)과 여자 챔피언십(전 연령 참가) 1m스프링 결선(178.50점)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러 추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부혜주는 지난 달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에서 플랫폼싱크로에서 팀 선배 이예주(남녕고3)와 호흡을 맞춰 금빛 연기와 함께 플랫폼에서 동메달 등 2개의 메달을 따내며 제주 다이빙의 간판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왼쪽부터 부혜주(남녕고1), 김보경(한라중2). 제주도수영연맹 제공

박선연 보디빌딩 세계선수권 피지크 정상

지난해 5위 이어 올해 재도전해 금메달 '韓 최초'

제주 여자 보디빌딩의 노장 박선연(55·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이 2026 IFBB 남녀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피지크 부문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자보디빌딩 역사상 첫 피지크 종목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4일 제주자치도보디빌딩협회에 따르면 박선연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스페인 산타수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55세의 나이에도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여자 피지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박선연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세계무대에 도전해 왔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메달권 진입에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한 박선연은 이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 대한민국 여자 보디빌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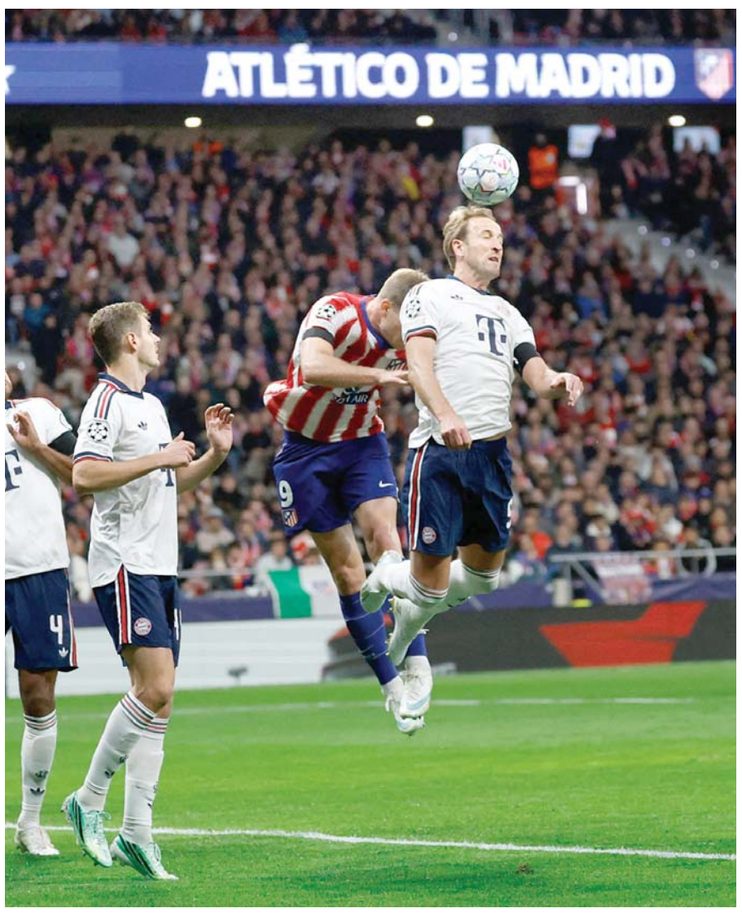
여자 피지크는 여성 선수의 근육 발달 정도와 균형미, 근육의 선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탄탄한 신체 관리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한다.



박선연. 제주도보디빌딩협회 제공

박선연은 지난 9월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2026 IFBB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0 격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해리 케인(오른쪽)이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26-202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후반 연속골을 넣으며 2-0으로 이겼다. 아틀레티코의 이강인과 뮌헨의 김민재는 후반 교체 출전했다. 연합뉴스

제주서초 출신 백건 U-17 대표팀 승선

오는 19일 우간다와 첫 경기

제주 출신 축구선수 백건(신평고)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일 오는 19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6 FIFA U-17 월드컵에 참가할 남자 U-17 대표팀 최종 명단 21명을 발표했다. 김현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골키퍼 3명, 수비수 7명, 미드필더 9명, 공격수 2명으로 구성됐으며, 백건은 신평고 소속으로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백건은 제주서초등학교 출신으로, 제주서초 재학 중 청주FCK U12로 팀을 옮겼으며, 이후 전북현대 U15(금산중)와 전주영생고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신평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 학원팀 소속 선수는 백건과 이승화(보인고) 등 단 2명으로, 프로구단 산하 유스팀 소속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백건의 발탁은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카타르 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하는 백건. 제주도체육회 제공

대표팀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026 AFC U-17 아시안컵 8강 진출로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후 9월 스위스에서 열린 UEFA 프렌드십컵 등을 통해 전력을 점검했으며, 오는 7일까지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최종 훈련을 진행한 뒤 11일 카타르 도하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 B조에 편성돼 11월 19일 우간다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2일 뉴칼레도니아, 25일 에콰도르와 차례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위영석기자

'무쇠팔' 故 최동원 야구선수 첫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제5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3명(박주봉·최동원·황영조)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최동원을 올해의 스포츠영웅으로 결정했다.

최동원은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4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이끌었고, 1977년 대륙간컵과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등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다. 프로야구 통산 8시즌 동안 248경기에 등판해 103승, 26세이브, 1019탈삼진,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와 해설위원, 한국야구위원회 경기 운영위원,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 등으로 활동하며 야구 발전에 공헌하다가 2011년 지병인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1년 별세한 고 최동원. 연합뉴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대한체육회가 근현대 스포츠 역사를 빛낸 전설적 영웅을 선정해 기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처음 제정됐다.

최동원은 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으며 구기 종목 선수로는 박신자(농구·2015년), 차범근(축구·2017년) 이후 세 번째다. 연합뉴스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청백봉사상

제50회 청백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태 헌(애월읍장)

애월읍이장단협의회
회 장 강 순 원 외 25개리 이장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청백봉사상



김 태 헌
(애월읍장)

제50회 청백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음1리 리민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고씨종문회총본부
제28대 회장



고 문 화

고씨종문회총본부 제28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 동 화